

## 박태환 자유형 400m 이어 1,500m도 우승

# “이젠 올림픽 금이다”



### ■ 범태평양 수영대회 남자부

‘수영의 희망’ 박태환(17·경기고)이 다시 한번 일을 냈다.

박태환은 21일(이하 한국시간)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빅토리아에서 펼쳐진 2006 범태평양 수영대회 마지막 날 남자 자유형 1,500m 결승에서 15분06초11에 물살을 갈라 우승했다.

박태환은 전날 자유형 400m 금메달 패기에 이어 또 자신의 주종목인 1,500m에서도 1위를 차지해 다시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했다.

4번 레인을 배정 받은 박태환은 함께 레이스를 펼치게 된 8명 가운데 0.75초의 빠른 출발 반응을 보이며 힘차게 물 속으로 뛰어 들었고 100m 지점에서 턴을 할 때부터 선두로 앞서 나갔다.

200m 지점에서는 마츠다 다케시(일본)와 밴더케이에게 선두 자리를 내준 박태환은 500m를 달리고 난 뒤 턴을 했을 때는 5위로 처졌다. 하지만 꾸준히 페이스 조절을 하던 박태환은 1,000m 지점에서는 선두인 벤트에 이어 2위로 턴을 하며 선두권을 되찾았다.

줄곧 벤트를 따라가던 박태환은 마지막 100m를 남겨 놓은 시점에서 또 극적인 역전 레이스를 펼쳤다. 박태환은 1,400m 지점을 14분09초99에 찍어 벤트보다 0.02초 앞서더니 1,450m 지점에서는 14분38초96에 턴을 해 벤트를 0.46초 차로 따돌렸다.

마지막 50m 구간에서도 박태환은 긴장을 풀지 않고 더욱 힘을 내 결국 15분06초11에 터치패드에 손을 갖다 대 15분07초17을 기록한 벤트보다 무려 1.06초나 앞선 기록으로 골인했다.

앞서 열린 여자 평영 200m 결승에서는 정슬기(18·서울체고)가 2분27초09에 물살을 헤쳐 수전 반 빌론(2분26초36·남아공), 아사미 기타가와(2분27초07·일본)에 이어 3위로 골인,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정슬기의 동메달도 한국 여자 선수로는 정규코스 세계대회에서 사상 최조다.

정슬기의 이날 기록은 자신의 종전 한국 기록(2분28초02)도 갈아치운 것이다.

한국은 이로써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따냈으며 아시아인 기록 2개에 한국신기록도 11개나 수립하는 사상 초유의 경이로운 성적을 거두게 됐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박태환이 21일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빅토리아에서 펼쳐진 2006 범태평양 수영대회 마지막 날 남자 자유형 1,500m 결승에서 역영을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타이거 우즈가 21일 미국 일리노이주 메디나 골프장에서 열린 PGA 챔피언십 마지막 라운드에서 우승을 확정지은 뒤 환호하고 있다. /AP=연합뉴스

# ‘역전 불허’ 우즈 올 메이저 2관왕

## PGA 챔피언십 우승...최경주 공동 7위

타이거 우즈(미국)가 통산 12번째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메이저대회 우승 트로피를 수직했다.

한국의 간판 최경주(36·나이키골프)는 10언더파 278타로 공동 7위에 올라 2개 대회 연속 ‘톱10’ 입상으로 부진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을 알렸다.

우즈는 21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메디나의 메디나골프장(파7·7천561야드)에서 열린 PGA 챔피언십 4라운드에서 4언더파 68타를 쳐 최종합계 18언더파 270타로 2위 손 미끼(미국·275타)를 5타차로 여유있게 따돌렸다.

이로써 올 시즌 브리티시오픈을 포함해 메이저대회 2관왕을 차지한 우즈는 122만달러의 상금을 받아 시즌 상금 635만달러로 2

위 짐 퓨릭(미국·473만달러)과 격차를 더욱 벌리며 삼관왕과 ‘올해의 선수상’을 사실상 예약했다.

지난 2000년에 이어 PGA 챔피언십 3번째 우승을 차지한 우즈는 시즌 5승과 함께 통산 우승 횟수도 51회로 늘렸다.

이전까지 선두로 최종 라운드를 시작했던 11차례 메이저대회에서 모두 우승을 차지한 ‘빨간 셔츠의 공포’를 다시 각인시켜주는 한 판이었다.

우즈의 우승은 사실상 전반이 끝나기도 전에 결정됐다. 1번홀(파4)에서 3m 짜리 버디 퍼팅을 집어넣어 1타차 단독 선두로 치고 나간 우즈는 도널드(파4)에서 1타를 잃은 덕에 2타차로 달아났다.

우즈는 5번홀(파5)과 6번홀(파4) 연속 버

디로 도널드를 멀찌감치 밀어냈고 8번홀(파3)에서는 10m 버디 퍼트를 꽂아 넣으면서 대세에 쐬기를 박았다.

2위 경쟁에서는 3타를 줄인 미끼가 5언더파 67타로 선전을 펼친 애덤 스콧(호주)과 70타를 친 셰르히오 가르시아(스페인), 그리고 도널드를 1타차로 제쳤다.

최경주는 5번홀부터 7번홀까지 3개를 연속 버디를 뽑아내는 등 5개의 버디를 쏟아냈지만 보기 4개를 곁들여 1언더파 71타를 쳤다.

최경주는 이로써 앞선 US뱅크 챔피언십 공동9위에 이어 2개 대회 연속 ‘톱10’ 입상의 상승세를 탔으며 특히 올해 3개 메이저대회 컷오프의 수모도 씻어냈다.

다음 주 신항동해오픈 출전자 귀국하는 최경주는 2004년 마스터스 3위와 PGA 챔피언십 6위에 이어 메이저대회에서 통산 세번째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 우즈 기록은 계속된다

## 메이저 우승 12회 최다 기록엔 ‘-6’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PGA 챔피언십에서 열두 번째 메이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각종 기록을 쏟아냈다.

우즈는 21일(이하 한국시간) 메디나골프장에서 열린 PGA 챔피언십에서 열두 번째 메이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각종 기록을 쏟아냈다. 우즈는 21일(이하 한국시간) 메디나골프장에서 열린 PGA 챔피언십에서 열두 번째 메이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각종 기록을 쏟아냈다.

니콜로스가 25년 동안에 메이저 18승을 달성한 반면 우즈는 10년 동안에 12승을 거둔 만큼 그가 이룬 업적은 그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또한 우즈는 올 시즌 브리티시오픈에 이어 PGA 챔피언십을 제패함으로써 마스터스와 브리티시오픈을 우승했던 2005년을 포함해 2년 연속 메이저대회 2승 이상을 올린 PGA 투어 최초의 선수가 됐다.

1999년 메디나골프장에서 열렸던 PGA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뒤 7년 만에 다시 찾은 골프장에서 정상에 오른 것도 이 대회 역사상 처음이다.

우즈는 또 3라운드까지 선두로 나섰던 12개 대회에서 모두 우승하며 ‘역전 불허’의 신화를 이어 나갔고 메이저대회에서 5타차 이상으로 우승한 것은 이번이 5번째였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장정은 21일 미국 오리건주 컬럼비아 에지워터골프장에서 열린 LPGA 세이프웨이클래식 마지막 날 18번홀에서 티샷을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 장정 1타차 ‘아쉬운 준우승’

## 노장 허스트 시즌 첫 우승

### LPGA 세이프웨이클래식 최종

‘작은 거인’ 장정(26·기업은행)이 아쉽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2승을 놓쳤다.

장정은 21일(한국시간)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컬럼비아 에지워터골프장(파7·6천327야드)에서 열린 세이프웨이클래식 마지막 날 2언더파 70타를 쳐 최종합계 9언더파 207타로 1타차 공동 2위에 올랐다.

노장 팻 허스트(미국·206타)가 시즌 첫 번째이자 통산 5승을 거머쥐었다.

장정은 2000년 이 대회에서 김미현(29·KTF)과 연장 승부에서 패해 준우승에 머물렀고, 강수연(30·삼성전자)이 우승했던 작년에도 준우승을 해 3차례나 준우승에 머무는 아쉬움을 남겼다.

한국의 ‘첫날’이었던 대회 3년 연속 한국 선수의 우승은 무산됐고, ‘한국 군단의 시즌 10승 달성’ 기회도 다음으로 미뤄졌다.

이날 장정은 11번홀(파4)에서 3번째 버디를 속아내면서 앞서가던 허스트를 따라잡아 공동 선두에 나서기도 했으나 12번홀(파5)에서 보기를 범했고 이후 버디를 추가한 허스트에 2타차로 벌어졌다.

장정은 허스트가 17번홀(파4)에서 보기를 범해 다시 1타차로 좁혀진 뒤 16번홀(파3)에서 긴 버디 퍼트를 시도했으나 아쉽게 홀을 살짝 지나쳐 동타의 기회를 놓쳤다.

장정은 다시 마지막홀(파4)에서 2.5m짜리 회심의 버디퍼트를 시도했으나 안타깝게도 홀 오른쪽으로 살짝 빗나가 연장 승부의 기회를 잡지 못했다.

장정은 이번 대회를 포함해 올 시즌 톱10에 10차례 들었고, 준우승은 2차례를 했다.

첫날 단독 선두에 나서 우승 기대를 높였던 이지영(21·하이마트)은 둘째날 티샷 난조로 3타를 잃은 뒤 이날 1타를 만회하는데 그쳐 함께 6언더파 210타로 박희정(25·CJ)과 공동 5위에 입상하는데 만족해야 했다. 김미현과 이미나(25·KTF), 김초롱(22)이 공동 7위에 입상했고, 한희원(28·라코리아)은 공동 14위에 그쳤다.

### ■ 금주의 프로야구

## KIA, LG 상대 ‘4위 지키기’ 나서

“이건 아니잖아...”

3위 탈환을 눈앞에 뒀던 KIA가 3연패의 늪에 빠지면서 4위 수성마저 장담할 수 없는 처량한 신세가 됐다.

지난 18일과 19일 우천으로 두 경기를 쉬었던 KIA는 20일 사직구장에서 열린 롯데와의 원정경기서 1-5로 패했다. 지난 16, 17일 삼성전 패배에 이은 3연패째다.

이로써 KIA는 5위 두산과 1.5게임차, 6위 SK와는 2게임차로 4위 확보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KIA는 다행히 이번주 ‘꼴찌’ LG와 잠시 주중 3연전(22~24일)을 벌인다. 올 시즌 상대전적서도 9승3패로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 승수를 쌓을 가능성도 그만큼 높다. KIA는 특히 3연패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상위타선의 폭발력은 여전히 우려

◇프로야구 중간순위 (21일현재)

순위	팀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연속
1	삼성	57	34	3	0.626	-	2패
2	한화	50	41	2	0.549	7.0	5승
3	현대	51	43	1	0.543	7.5	1승
4	KIA	44	44	3	0.509	11.5	3패
5	두산	43	46	2	0.483	13.0	2승
6	SK	47	51	1	0.480	13.5	1패
7	롯데	33	50	2	0.412	19.0	1승
8	LG	38	56	4	0.404	20.5	3패

적이다.

1번 이용규부터 4번 이재주까지 최근 6경기서 모두 타율 3할 이상을 쳤다. 이 기간 KIA의 팀 타율도 무려 0.316이나 된다. 하지만 이에맞선 LG 역시 최근 6경기서 5할타를 때린 ‘간판타자’ 이병규를 중심으로 만만치 않은 타격감을 뽐내고 있

다. 같은 기간 팀 타율(0.318)은 오히려 KIA보다도 높은 만큼 방심은 금물이다.

KIA는 LG와의 접전 이후 주말엔 광주서 3위 현대와 맞붙는다.

KIA와 현대는 각각 4위 확보와 2위 탈환의 갈림길에 놓여 있어 주말 빅 매치에 총력을 다짐하고 있다.

KIA로선 상대전적에서 3승 10패로 저조한 점이 다소 마음에 걸린다.

다만 최근 현대의 불펜진이 흔들리고 타선 응집력도 주춤하고 있다는 점이 위안이다.

KIA가 주중 LG전을 보약삼아 주말 현대와의 빅매치를 발판으로 안정적인 4위권 확보의 목표를 이룰 수 있을 지 기대되는 한주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